

치열한 순위 싸움 속 이탈자 속출… 프로야구 부상 주의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KIA 나성범이 3회말 연타석 홈런을 친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뉴스시스

KIA 나성범·KT 허경민·한화 안치홍·LG 에르난데스 등 부상
삼성, 김지찬·김영웅·김현곤·임창민 등 부상자 많아 고민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부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창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부상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4위 삼성 라이온즈(19승 1무 18패)는 선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수 김지찬(햄스트링)과 김영웅(가래트), 김현곤(허리), 베테랑 투수 임창민(팔)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구원 투수 김무신과 이재희는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설상가상으로 6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핵심 타자 구자욱은 팔꿈치에 사구를 맞았고, 주전 포수 강민호는 무릎에 파울 타구를 맞는 불운을 겪었다.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피했으나 7일 한화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5위 KT 위즈(18승 2무 18패) 역시 부상병동에 신을 중이다. 허경민(햄스트링)과 김상수(복사근), 오윤석(내전근), 장준원(발목)이 부상을 당하면서 무려 내야수 4명이 전력에서 제외됐다. 지난 2일 왼쪽 발목 수술을 받은 장준원은 재활에 12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3위 롯데 자이언츠(22승 1무 16패)는 최근 부상자들이 속출해 고민이 깊다. 빼어난 타격을 보여주던 전민재는 지난달 29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투수 양지울에게 헤드샷을 맞아 오른쪽 안구 내 출혈이 있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리드오프 황성빈과 외국인 투수 찰리 밴즈는 각각 손가락 중수골 골절, 견갑하근 손상으로 8일 정밀 검진을 받는다.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생했던 공동 6위 KIA 타이거즈(16승 1

무 19패)는 여전히 완전체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털고 돌아왔으나 지난달 27일 나성범이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1군에서 말소됐다. 구원 투수 박도규는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됐다.

9위 두산 베어스(16승 1무 20패)의 토종 에이스 광빈(내복사근)과 불펜의 주축인 홍건희(팔꿈치)는 부상 탓에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불펜 중 다행으로 광빈은 투구를 시작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광빈에 대해 “이번 주 한 번 더 불펜 투구를 하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복귀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선두를 질주 중인 한화(24승 13패)는 파죽의 9연승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이 부상으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안치홍은 시즌 초 수비 도중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호소했고, 아직 상태가 온전치 않다.

2위 LG 트윈스(23승 14패)와 공동 6위 SSG 랜더스(16승 1무 19패)는 팀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허벅지)와 기예르모 에레디아(허벅지 중기)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를 맞았다.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 LG 코엔 원과 SSG 라이언 맥브루이 이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8위 NC 다이노스(15승 18패)는 필승조 투수 김영규와 외야수 김성욱(이상 어깨) 등이 복귀를 준비 중이고, 10위 키움(13승 27패)의 슈퍼 루키 정현우(어깨)는 지난달 17일 어깨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뉴스시스



광주시, 챔필 관람석 교체 “산뜻하게 즐기세요”

8월까지 ‘경기 없는 날’ 일 200여개씩 1만6294석 전면 교체

3루~1루 순차적으로… 좌판·등판·킥홀더 키워 편의성 높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8월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관람석 전면 교체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 준공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일반 관람석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후 관람석 교체를 위해 지난해 10월 KIA 타이거즈와 ‘지역사회의 스포츠 문화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석 정비를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 3~4월 기존 관람석 틀에 맞는 금형 제작을 추진,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 완성했다.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판과 등판, 킥홀더 크기를 확대했다. 디자인과 색상은 동일하다.

당초 4월 교체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창원NC파크 사고에 따른 구장 점검으로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 원정경기가 휴경

기로 대체됨에 따라 다소 늦어져 지난 7일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관람석 교체 작업은 3루측 타이거즈 가족석·K5석을 시작으로 3루측 K8·K9과 중앙데이블석, 1루측 K9·K8·K5·타이거즈 가족석, 가장 위층에 있는 EV석 순으로 진행된다.

1일 교체수량은 200여석으로, 일반 관람석 총 1만6294석을 전면 교체한다. 기아팬과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가 없는 날 교체 작업을 진행, 관람과 경기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석등판과 좌판, 킥홀더 등의 크기를 키웠다. 새 관람석에서 산뜻하게 KIA 야구를 즐기시길 바란다”면서 “광주시는 올해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제2의 전성기 김효주 “올겨울 맹훈련·매니저 심서연이 상승세 비결”

9일 아람코 챔피언십 한국 대회 출격… 대회 2연패 도전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김효주가 한국 팬들 앞에 나선다.

김효주는 8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기자회견에 나서 한국 대회에 나서는 설렘을 전했다.

아람코 챔피언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ET 대회 중 하나로,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이곳에서 열린다.

지난해 한국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김효주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이날 전 세계랭킹 1위 박성현, 교보 선수 대니엘 강(미국)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 대회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나서는 한국 경기다.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둔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할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다”며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만큼 더욱 특별하게 좋은 성적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국내 팬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밝게 웃은 김효주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회에선 워낙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골프가 더 재밌어진다. 미국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고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매년 한국 대회를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매년 팬분들은 기분 좋게 맞이해 주신다. 이번에 또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8위 김효주는 올해 3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4월에 치른 시즌 첫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연장 끝에 준우승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18개 대회에 나서 우승 없이 톱10만 세 차례 기록했던 지난 시즌 성적을 이미 뛰어넘었다.

어느새 미국 무대에 진출한 지도 10년이 넘는 김효주는 “미국 투어를 생각보다 오래 뛰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제 나름대로 슬럼프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겨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며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에 대해 만족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다. 겨울에 연습을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 시즌 상승세의 비결을 전했다.

새롭게 매니저로 동행하게 된 전 여

자축구 국가대표 심서연 역시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효주는 “정말 외의의 사람이 매니저를 맡았다. 다른 분야에서 크게 활약했던 선수다. 언니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좀 안 맞으면 제가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 같은 운동선수로서 언니가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 또 언니가 밥을 많이 해줬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친구 같은 느낌으로 투어를 다니다 보니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들 전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시차 적응에 들어갔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대회가 열리는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은 김효주가 가끔 라운딩도 하는 익숙한 곳이다.

그는 “코스 잘 아는 것이 아주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며 “코스 그린의 경사가 심한 만큼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행 윤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감리 (주)한화/건설

HDC 엔지니어링개발

062) 607-8338